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 (제 92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길을 준비하다’ 예레미야

◎시대를 깨닫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의 구별하지 제사장 할로윈’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 ‘길을 준비하다’ 예레미야

오늘은 길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 싶습니다.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 잘못된 교리를 질문해야한다고 성서가 말하고있는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세레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위한 길을 마련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 세레 요한이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 한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3:1** 그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3:3**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미리 예언 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있었습니다.

**이사야 40:3** ○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40:5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길을 갓출 필요가 있는가>

이 곳에서 주님을 위해 길을 닦는 것, 길을 평평하게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소박한 의문으로 왜 길을 정돈하고 길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대답이며, 그것은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진다. 달아 오른 땅은 평지에 험한 땅은 평야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도 분명하다, 있어야 높이에 미달 계곡처럼 낮은 곳이 있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 매립하여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있어야 높이보다 훨씬 너무 높은 산과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위해 낮게 할 필요가있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길을 구부러 고르지 못한 똑바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라고 마 서라고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 것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만, 그럼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동해와 中仙道 같은 실제 도로 및 도로 일이 없습니다. 길을 곧게하라,라고해도 세례 요한은 도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다음의 말씀처럼 진리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당시 주로 첫 강림 때 올바른 진리의 길을 구부러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길을 구부 사람들과의 죄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1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14 {없음}

23:15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2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24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3:25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위선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진리에 이르는 길을 구부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하는 사람들을 미혹 그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다. 위선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파 사람들 아 너희는 사람들에서 천국을 막고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들어 가지 않고 들어가려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없는거야 입니다."라는 주님의 지적은 바로 그들이 가고있는 진리의 길을 구부리는 일에 대해 비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길을 구부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마 3 : 7 ~ 10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을 살펴 보자.

**마태복음 3: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봉사를 하나님을 섬기고있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해 그들이 독사의 자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독사 뱀이며, 에덴 동산의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 죄에 관한 비난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뱀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을 요한은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구부 같은 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다는 것 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며 환난 전 이니 잘못된 뱀 같은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 진노를 피할 어려울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또한 지금의 교회에서 일단 그리스도인이되면 결코 멸망과 심판을 만나지 않는다는 편리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여기에 쓰여져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 바리새인에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반드시 올 진노를 피할 가르치느냐?"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있을 바리새인에 대해 "반드시 진노가 온다"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또한 봅시다.

**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요한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마음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만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민하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니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 질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며, 사실 신약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말씀하고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 세례 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에서 누출도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이이 곳에서 얘기하는 경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것에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 <세례 요한은 종말의 날 엘리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첫 오순절에 그 경고의 역할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은 사실 올 엘리야임을 강조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1: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종말의 날에 와서 경고를 할 수는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예언자 엘리야가 파견 될 수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주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 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당시의 교사 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그 속에서 요한은 순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수용하지 그들은 죄를 거듭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생명을 빼앗 았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여 서기 70 년,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 속에서 멸망이 도시의 사람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 복음이 말하고있는 것은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도 백성의 지도자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걸음을 だだ 않고 멸망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슬픈 결말입니다. 같은 일이 종말에 재현 할지도 모릅니다.

### <엘리야는 주님의 재림 전에 다시 온다>

그런데,이 세례 요한의 수 또한 엘리야가 와서 예언은 주님의 첫 강림 때만으로 완결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시대의 끝, 종말의 날이 예언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라 내가 주님의 큰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리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만,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종말의 주님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 날이 예언은 실전의 성취를 맞이합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종말의 날에 오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종말의 예언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11: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1: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2 명의 선지자 엘리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세례 요한처럼 종말의 날에서 길을 구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예언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요한처럼 순교 목숨을 잃을 수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 <종말의 날에 길을 정돈 할 필요가있다>

왜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 전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첫 강림 전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난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우처럼 종말의 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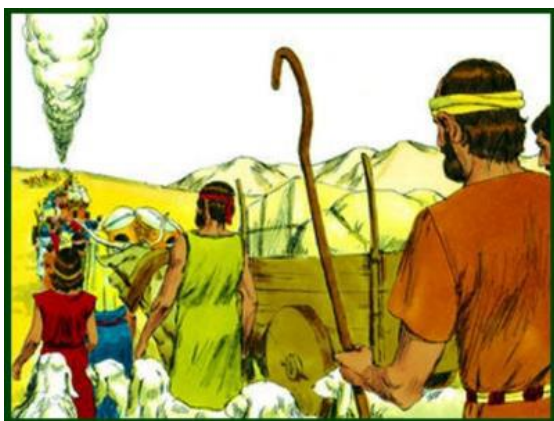
주님을위한 도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길이 구부러져 있으며 고르지 못한 계곡처럼 낮아 지거나, 산처럼 너무 하거나 있어야 상태 양으니 그 때문입니다. 소방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마을을 달리는 것은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종말의 날에 다시 엘리야가 와서한다는 것은 종말의 날에 도로가 구부러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구부리고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하면 그것은 교회의 교사 나 목사, 지도자 성경 학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구부리고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교리에 문제가없고, 길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엘리야가 올 필요는 없다>

그런 이유로 역설적 인 표현이지만, 우리는이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지금의 교회의 교리는 많은 굽은 가르치고 굽은 도로가 있고, 있어야 곳에서 계곡처럼 너무 낮거나 혹은 산처럼 너무 높은 교리 나 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이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는 종말의 날이 땅에 와서 교리 나 길을 재건하기 위해 일하고 경고를 이루도록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없다면 의사가 올 필요가 없도록 우리 시대의 길이 구부러져 있지 않으면, 종말의 날에 엘리야가 보냄을받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가 오지 전부터 예언되었으며 그가 오는 이유는있는 것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의 교회의 교리는 확실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설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또한 항간 불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이되면 구원의 누출은없는 심판도 없다고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행보가 잘못된다면 멸망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10 : 1 ~ 6 은 출애굽 광야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음식을 먹고 성령의 음료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되었다가 그려진 있습니다. "침례, 성령의 음식 성령의 음료"는 신약의 용어이며, 즉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견지 않으면 멸망을 경고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계명 때문입니다."1 고린 10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결코 파멸되지는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 봅시다. - 이상 -



광야의 백성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형태

## 시대를 깨닫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는 구별하지 제사장 할로윈"H.F

시간을 깨달으라. 나주의 말이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현재는 전례없는만큼, 점이나 주술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나 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나, 오컬트적인 게임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이 유행함에 따라 오컬트 주술이나 마술을 걸다 것 등은 매우 친숙한 물건이되고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할로윈 행사가 일본에서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할로윈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어떻게 든 70 %의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로윈 일본에서는 1990 년 초부터 점차 확산 시작해 지금은 곳곳에서 가장 퍼레이드 나 행사가 상업적으로 널리 다루어지게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게에서 할로윈 오렌지 호박 장식이 이루어져 과자 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할로윈 의상이나 과자를 받거나와 아이들의 즐거운 계절의 행사가되어있는 것입니다. 10 월 말 도쿄의 시부야에서는 할로윈 의상을 한 젊은이들이 넘쳐 그 안에는 좀비와 해골이라는 무시 무시한 의상을하는 젊은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도 할로윈 의상을하고 비밀상을 즐기는 행사가되고있는 것입니다.

이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인의 축제이며, 원래는 사왕 축제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 축제를 7 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1 세 로마 가톨릭 교황에 의해 기존의 이교도의 축일과 관습을 기독교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만 聖祭 (All Saints Day / .All Hallows Day)라는 기존의 가톨릭 축제로 옮긴 것입니다. 고대 켈트족이 사왕 축제 때 심령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막이 울러 놓아 죽은 영혼과 교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죽은 주로 어둠의 마왕을 기리기위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이 축제는 인간의 희생, 아이의 제물이 바쳐 처참한 의식을 따른 것이 었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이교도의 축제가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이 축제는 악마를 일컫는 것이며,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러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악마 숭배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할로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되어 있습니다. 오컬트에 관한 유명한 저자이다

요한나 미켈슨은 라이트 하우스 트레일 사이트에서 할로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또한 "1951 년에 영국에서 마술 단속법이 폐지되고, 마녀, 마법 사용은 현재 본격적인 부활을 오늘날의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세계에서 아이들 사람들에게 영향을주고있다"고 말했다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악마 숭배하는 마녀, 마술사는 많이 존재하고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축제 생각 할로윈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보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마귀의 집회에 참석하고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오컬트적인 악영향을 모르는 사이에 받으므로 초기 미국에서 할로윈은 유해한 것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미국에서 재미있는 행사로 완전히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에 대한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취급하고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찬 투데이 영국 버전에서 "교회가 할로윈을 되 찾아야 이유"라고 기사에서 치네 맥도날드 (Chine McDonald) 영국 월드 비전 기독교 감화 · 참여 부장은 할로윈에 의해 복 7 소리를

전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월드 비전은 "호박 히어로즈"라는 호박의 캐릭터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할로윈에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신적인 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투데이 (일본 판 10 월 31 일)에서도 할로윈의 취급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할로윈은 그리스도인들이 축하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의 저명한 목사가 대답합니다. 할로윈의 기원은 이교도적인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 행사로 정착하고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태연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대답도 비판 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 3 의 길'을 보여줍니다. 로마 14 장 바울의 "중심 주제이어야 어디라도 좋다"는 내용을 참조하고 중심적인 테마가 아닌 것을 "회색 지대"로 생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할로윈의 문제는 "회색 지대"이며, 각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참가해서는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비추어 참가해도 좋다고하여 서로 상대의 선택을 이것 저것 비판해서는 않으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선택 간다는 답변은보기 매우 균형 잡힌 신앙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할로윈의 문제가 "중심 주제"가 아닌'회색 지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10: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있습니다. 할로윈은 악마 송배로 이어지는 신앙의 근본 내용 '중심 테마'가 아닐까요. 결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험을 정말 알 수 있다면 각자에 맡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백성에게 가르쳤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교도의 더러운 것과 거룩을 구별하지 않았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에 대해 분노를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성 주물과 더러운 것과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할로윈 할로윈 귀신적인 축제**